11월 2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1월 2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전세계 자산거품 우려 확산..` 제 2의 위기` 오나	전세계 정부가 상당기간 저금리 정책을 이어가면서 자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정책에 기반한 글로벌 주식시장과 상품시장 급등세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거품을 양산해 제 2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특히 미 달러화 등 저금리 통화의 캐리 트레이드도 거품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 유럽과 아시아 등 각국 정부는 최근 자산 거품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음. 그러나 거품을 차단하기 위한 감작스런 정책 선회도 글로벌 경제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음. 안정적인 경제회복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할 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 ◇ 주가·상품가격 급등세..자산 거품 우려 확산 최근 수개월간 주가와 상품가격의 동반 급등세는 자산가격 거품을 나타내는 지표. 전세계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MSCI 월드 인덱스는 올들어 지금까지 25% 올랐고, 지난 3월 저점 보다는 66% 뛰어올랐음. 연초 이후 국제유가는 70% 급등해 현재는 배럴당 76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주가와 상품가격 상승세는 특히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당분간 저금리 유지` 발언과 유럽 및 영국 중앙은행의 상급한 출구전략 자제 발언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 투자자들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좇아 좀더 리스크 있는 투자상품으로 옮겨갔기 때문. 이같은 추세는 올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美 달러화 중심 캐리 트레이드도 거품 발생에 기여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빌려 다른 국가의 통화 또는 자산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도 거품 발생의 근간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 가운데서도 특히 미 달러화는 활발한 캐리 트레이드를 촉발시킨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음. ◇ 글로벌 경제 회복세 유지나, 자산 거품 안정화나 자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의견은 엇갈림. 글로벌 경제 회복을 추구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당분간 더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산 거품을 꺼뜨리기 위해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할 것인가.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기에 각국 정부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음.

제목	주요 내용
KDI, 韓 내년 성장률 5.5% `최고`..올해 0.2%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5.5%로 제시했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30개 회원국중 한국을 성장률 1위로 올리놓으면서 제시한 전망치 4.4%보다도 무려 1.1%p나 높은 것으로 주요 기관들 발표중 `최고치`임. 올해의 성장률은 0.2% `플러스`로 예상했음. KDI는 22일 발표한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2%, 내년엔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음. 지난 9월 제시한 전망치(올해 - 0.7%, 내년 4.2%)에 비해 올해는 0.9%p, 내년은 1.3%p 상향 조정된 수치.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의 급격한 위축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음. 실제로 2분기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각각 전기대비 2.6%, 2.9%를 기록했음. 수출감소율도 올초 30%대에서 최근 두달연속 한 자릿수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임. KDI는 "수출의 개선추세가 유지되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기회복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세계경제 회복세도 점진적으로 가시화되며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음. 다만 올 상반기 성장률이 급락한데 따라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하반기보다 높을 것이나 전기대비로는 상반기 1.0%, 하반기 1.1%로 비슷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했음. 이는 올 2, 3분기 성장률에 비해 속도는 다소 둔화된 것이지만 경기의 회복흐름은 이어질 것이란 분석임.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외환은행에 관심있다"	KB금융지주와 산은금융지주에 이어 하나금융지주도 외환은행(004940)(14,650원 0 0%) 인수·합병(M&A)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음.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0일 열린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으며 거기엔 외환은행도 포함된다"고 밝혔음. 김 회장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서도 "자금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음. 다만 김 회장은 "M&A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다"며 "규모는 (은행 발전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고 강조했음. 그는 이어 "결국은 기업 문화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년 금융위기가 오니, 보통때처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음. 앞서 지난주 강정원 KB금융지주 회장 대행 겸 국민은행장과 민유성 산은지주 회장도 외환은행 인수 의사를 잇따라 밝혔음. 외환은행 인수·합병(M&A)이 내년 국내 은행권 재편의 `핵심키`가 될 것이라는 금융권 인식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주주인 론스타가 아직 매각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은행들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함. 김 회장은 내년 하나금융지주의 글로벌 전략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 차원에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